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崙鳳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慶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替口座: 010983-31-0 513119
 私書函: 서울清涼洞郵局137號

新年辭

會長 政治學博士 明會



自降千率雨風四寧
 兆福萬 順調海

安東金氏大宗會 常任副會長 崙會 新年祝頌 揮毫

祝新禧
 乙丑元日
 李崙會

親愛하옵고, 尊敬하옵는 全國의 宗親 여러분!!
 人類의 歷史를 輪回해 온 無限한 時間의 흐름은 다시 六十年間을 向해 새로히 出發하는 甲子年의 한 해를 뜻없이 보내고, 이제 乙丑年의 和暢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다시 한번 全國各鄉에 祖蔭이 照臨하시어 門運이 繁昌하시고, 家庭마다 幸運이 깃들며, 하시는 事業에 더욱 繁榮이 있으시기 祈願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지난 一年間을 反省하고 希望찬 設計를 꾸며 봤지만, 언제나 失望과 苦惱만을 남기면서 또 一年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一年間을 回顧할 때, 甲子年의 한 해도 우리 宗中에서는 哀患의 時期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平生을 몸바쳐 爲先事業과 宗門을 위해 盡力하셨고, 大宗會의 創業에도 至大한 功績을 남기신 提學公派 利浩氏와 翼元公 派行默氏의 두분은 老願問께서 逝去하신 일이 나, 著名한 書藝家 이시며, 醫學博士로서 文學·音樂·體育等, 多方面에 萬能하

시어서, 世稱 八方美人으로 國內에 널리 그 名聲이 알려진 國寶級 存在, 恩達博士께서 뜻하지 않게 享年五十七歲로 別世하심은 實로 우리 宗中 悲한 일이나, 國家나, 社會의 次元에서도 크나 큰 衝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京鄕各地에서 많은 宗親들의 訃音을 接하였으니, 이 어찌 哀患의 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여 英靈에 對한 冥福을 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가 단지 哀患의 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一年 동안에도 새로운 生命이 일어나 出生하였으며, 새로운 世代, 들이 學窓에서 또는 職場에서 열어나 進就되었고, 얼마나 發展했습니까? 특히 四月달 總會에서는 그 어려운 關門을 突破하고, 農學博士 學位를 받은 現 忠南大學 教授 按廉使公派 泰喆 君과 全北大學 教授 翼元公派 泰興 君, 그리고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한 都評議公派 熙東 君과 行政科에 合格한 按廉使公派 樂會 君, 韓國美術展覽會에서 大賞을 獲得한 翼

元公派 哲洙 君에게 祝賀牌를 授與하고 金一封式을 주어 더욱 勤勉한 것을 당부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들 中 大部分이 後進을 爲한 獎學基金으로 返納하였고 哲洙 君의 大作 風竹圖는 忠烈公 先祖 影幀閣에 獻納하는 등 嘉尚한 善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이 모두가 宗中의 꽃이며, 앞날에 宗中의 柱石이 된다는 觀點에서 將來를 展望할 때, 盤石위에 세워진 高樓巨閣을 보는 느낌으로, 마음 든든한 생각 禁치 못합니다.
 또 우리 大宗會가 지난 一年 동안에 이룩한 事業의 成果도 顯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安東 陵洞의 忠烈公 先祖 齋室이 훌륭했으니, 急進하는 國土開發事業에 隨伴된 交通手段에 힘입어 每年 參祀하는 後孫만도 百餘名을 헤아리게 되고, 해마다 늘어가는 趨勢에 비추어, 그 狹隘한 形便을 免치 못하는바, 서울市 綜合民願室長인 都評議公派 昌信 宗親의 資料提供과 常任副會長 崙會氏의 周到細密하고 熱誠의 人 指導, 그리고 郡事公派 世舖氏의 能熟한 技術과 여러 宗親의 熱誠의 人 聲援에 힘입어, 雄大하고 華麗한 齋舍를 增築하였고 지난 享祀 때에 二百五十餘名의 後孫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嚴肅하게 祭享을 奉行하고, 아 울러 竣工式도 并行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또 大宗會報는 形便上 不得已 季刊發行에 그치고 있는 實情이나,當初에 一千七百部에 不過하던 發送部數가 一年 동안에 三千四百餘部로 늘어났고, 앞으로 漸漸 增加될 것인 즉, 이로 말미암아 相互間의 連絡網은 넓어지고 交通이나 交遊의 幅은 縮短되어 敦睦의 美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次元에서 볼 때 우리 宗中은 文化財 保存認可의 推進·神道碑閣建立·楡谷洞에 있는 遺墟碑閣의 淨化事業等이 남아 있고, 後進養成을 위한 獎學財團設立等 無數한 일들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神道碑의 文化財 保存認可 問題는 安東郡 當局을 爲始해서 地方人士들의 宿願이기도 해서, 一件書類를 提出하고, 幕後의 交渉도 推進中에 있으며, 이 決定에 따라 碑閣 建立도 後續事業으로 進行 하여야 하고 楡谷洞의 遺墟碑 淨化事業도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七項에서 계속)
 光海十二年(一六二〇) 六月二十八日 公은 享年 六十九歲로 考終하였으니, 그 後 哲宗 때 士林의 奏請으로 朝家에서 公에 對한 道學의 實과 忠義의 蹟을 認定 贊揚하고, 通訓大夫 司憲府 持平의 職이 追贈되었으며, 그 教旨에 이르기를 道學高明 允矣私淑 忠義特異 卓然勞績이라 하였으며, 이 教旨의 焚黃告禮 때, 都執禮는 擬寫 李判書였고, 當日 會員이 三百餘人이었으며, 士林에서는 道潭書院을 冊建해서 奠享하였다.
 公의 行狀은 掌令 鄭宗魯 公이 지었고, 墓誌銘은 刑曹判書 海左 丁範祖 公이 撰하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圓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聖域의 境地에 到達케 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獎學財團 設立에 對해서는 多年에 互한 懸案 問題였고 여러 宗親들의 所望이었으나, 여기에는 적지 않는 基金이 必要하기 때문에 遲遲不進한 狀態로 지내오다가 昨年부터 推進委員會를 結成하고 推進中에 있어도 아직은 肯定的인 效果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今年에는 기어코 成就시켜야 할 時急한 問題입니다.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許多한 事業을 計劃하고, 着實한 成就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全國宗親 하나하나의 힘이 합쳐지지 않고는 不可能한 것입니다. 우리 宗親들은 이 點을 勘案하시어서, 崇祖의 精神을 增加하시는 精誠을 쏟아 주신다면 所期의 目的은 能히 達成되고 이로 因해서 血族의 情 또한 敦篤해 지리라 믿으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 宗親의 家庭마다 幸運과 繁榮이 이룩되시도록 다시 한번 祈願해서 新年辭에 代하는 바입니다.

-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 會長 明會
 - 副會長 書默
 - 常任副會長 泰亨
 - 監事 相蒙
 - 總務部長 卿辰
 - 組織部長 斗會
 - 事業部長 相焮
 - 財政部長 賢潤
 - 出版部長 元榮
 - 涉外部長 穆應
 - 理事 在沼·履範
 - 載鴻·元鏞
 - 在文·在元
 - 喆會·明會
 - 壽鳳·會秀
 - 在均·在錫
 - 相祺·相勳
 - 國寶·昌會
 - 洙萬·龍吉
 - 振台·名會
 - 以會·容遠
 - 尚會·學永
 - 在湧

謹賀新年

海東名將傳 (遼東伯編) (1)

大提學文獻公 洪良浩 原作



忠武公金應河 尊影 (遼東伯 贈領議政)

발전 장신의 열매

김응하(金應河)의 자(字)는 경의(景義)이고 안동인(安東人)이며, 철원(鐵原)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키가 여덟자(八尺)가 넘고, 용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뛰어났으며, 기상이 호탕하고 의기가 당당하여 매사에 너그럽고, 한 자리에 앉아서 말을 몇말을 마셔도 조금도 취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었다.

김응하는二十五세에 무과(武科)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선조(宣祖)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술이나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때 백사(白沙) 이항부(李恒福)이 그를 한 번 불러 보고는 아주 기특하게 여겨, 곧 추천하여 강원관(廣源判官)으로 임명하였다.

경원판관으로 부임하였던 김응하는 얼마 아니하여 선천군수(宣川郡守) 겸 조방장(助防將)으로 전근하게 되었다. 그는 선천으로 부임한 뒤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수습하여, 그 안건을 열어 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고, 효성과 우애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을 알리게 하여, 만나 친하게 지내면서 예를 다하여 대접하였

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힘이 세다는 사람은 다 불러보 고 크게 신임하니, 고을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 김응하의 뜻을 따라 즉 도록 일하기로 다짐하였다.

김응하는 일찌기 오랑캐 땅의 준마(駿馬)로 아주 날래고 사나운 늑탄 마리를 구해 서 타고 다녔는데, 그는 말 위에서 그 투구와 활전대와 동 개(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지는 기구)를 앞으로 내던지고 뛰 으러 뛰어 내려, 이것을 집어 가지고 다시 말안장에 뛰어 오를 만큼 용맹하고 민첩하였 다. 그러나 그 성품은 아주 너그럽고 후해서 남을 대접한 이 공손하고 선비를 사랑함에 예를 다하였으며, 일을 처결 하는 것이 빨라서 마치 물이 흐르듯 조금도 지체되는 예가 없었다.

김응하는 당시 뛰어난 인물들과 사귀었는데, 이때 영변(寧邊)의 이계방(李繼芳), 이명달(李明達)과 칠산(七山)의 정기남(鄭奇男), 정사점(鄭思儉), 백봉경(白鳳京), 임동경(林東敬)과, 파산(郭山)의 탁송민(卓松敏)과 성천(成川)의 황이충(黃以忠), 나여취(羅汝就) 등 수백 명은 그와 아주 다정하게 지내 는 사이였다.

광해군(光海君) 10년(서기 1618)에 명나라는 후금(後金)을 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에 구원병을 청하여 왔다. 이 보다 먼저 만주 홍경에서 일어난 후금(청나라)은 차츰 요동지방까지 차지하고, 그 세력을 떨쳤다. 이에 명나라 에서는 이를 회복하려고, 우리 에게 구원을 청하므로, 우리는 임진왜란 때 임은 의리를 생 각하여 장홍립(姜弘立)을 대 장으로, 만 삼천명의 군사 를 내어 출전하게 되었다.

광해군 11년(기미)己未... 서기 1619년에 접은 심하 의 전역(深河之役)에 김응하 는 좌영장(左營將)으로 임명 되어, 그 원수(元帥) 장홍립 의 절제를 받게 되었다.

그가 출정하려 할 때, 그 아 우 김응하가 따라 가겠다고 나서므로 김응하는 이렇게 말 하였다. "우리 형제가 싸움터에 나 가서 함께 죽는다면 아무런 이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는 아우를 이렇게 힘써 만류한 다음, 가족들과 작별 하고, 군수(郡守)의 직인(印信)을 꼭 봉함하여 군의 아전 에게 주며 말하기를, "내 반드시 전사할 것이므 로 이것을 차고 가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대개 자명한 이치이다."

광해군 10년(무오)戊午... 1618년에 도원수 장홍립 은 군사를 거느리고 의주(義州)에 머물러 있다가, 창성(昌城)에 이르러 그대로 머물러 계을 지내고도 떠나지 않고

발서 신달 그믐날이 임박하였 다. 좌영장 김응하의 지인(知印)으로 있던 철현(鐵賢)은 나이가 19세였다. 그는 절혼 을 하고, 몇달이 안 되었는 데, 이때 집에 다녀오겠다고 청함으로 이를 허락하였더니, 그는 압록강을 건너는 날까지 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 들은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하였는데 며칠 뒤에 철 현은 압록강에서 2백리쯤 되 는 거리에서 뒤늦게 왔다. 이 에 김응하는 늦게 온 까닭을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치절 병이 갑자기 심해져서, 말을 탈 수 없어 늦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항상 김응하의 절에 있으면서 온갖 일을 보 살피고 그 명령을 받들어 모 션다.

광해군 11년(기미)己未... 정월에 이르러 명(明)나라 경략(經略)인 유정(劉綎)으로부 터 빨리와 달라는 독촉이 왔 는데, 2월 23일(사월)을 기하여 두 나라의 군사가 다 정마전 (驛馬田)에 모이기로 하였다. 이에 김응하가 거느린 좌영 군(左營軍)이 먼저 정한 곳에 이르니 명나라 군사는 벌써 다 도착하여 있었다.

김응하는 곧, 명 나라 도 독유정을 만나보니 그는 이 렇게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약속한 기 일보다 늦었는가? 지금도 원수(姜弘立)는 편안 한지 ?"

이에 대해 김응하는 대답 하기를, "보병들은 빨리 달려오지 못하여 뒤떨어졌으나, 도원 수가 거느린 대군은 곧 당 도할 것입니다."

유독은 김응하의 말이 유창하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용이 엄숙하게 정제된 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도 이와 같이 뛰어난 인물이 있었구나!"

그날 해가 저물 무렵에 도 원수 장홍립이 군사를 거느리 고 도착하였다. 명나라 도독 유정은 밤에 그를 불러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적을 철천락을 상의하였다. 이때 장홍립은 그의 의견을 말하 였다.

"군량이 뒤에 있어서 군사 들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형 세를 좀 기다려 봐야 하겠 다. 또 오랑캐의 땅은 깊고 멀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들어간다면, 나가기는 쉬우나,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이니 어찌하리오?"

장홍립의 말에 명나라 도 독유정이 대답하기를, "대군이 이르는 데는 마른 나무를 쪼고 썩은 나무를 불지르듯 모는 일이 쉬울 것이다. 적을 칠 때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빨리 진격하 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장홍립은 이 말을 듣고 아 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니, 도독 유정은 별척 성을 내며 말하였다.

"조선에서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 이와 같고서야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웅이 바로 눈앞에 있는 데도 교활한 어린이 같은 사람을 등용하여 사령관을 맡기다니?"

그런데 이때 도원수 장홍 립에 대해서는, '후금(後金) 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왕의 밀지가 있었다고 하고 혹은 군량이 끊어졌다는 구실 로 마음대로 지체하였다고도 하였다. 좌영장 김응하는 도 원수 장홍립이 싸움 뜻이 없 는 것을 알고, 한 부대를 내 어주면 거느리고 먼저 진격하 겠다고 청하니 장홍립은 이 를 허락하고 보병 5천 명을 주었다.

도 함부로 죽이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어 지랄 바를 물렸는데, 김응하 는 홀로 이 명령에 응하지 않 고 말하였다.

"군중에서는 임금의 명령도 오히려 받아서는 안 되는 때 가 있는데, 하물며 적과 맞 설 때, 칼을 거둔다는 말인 가?"

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명나라 군사와, 김응하가 거느린 좌영군은 언은 것이 매우 많았다. 김응하는 적을 쳐부수며, 먼저 2십리쯤 가 니, 부평(富平)이라는 곳이 보이는 데, 여기에는 산들의 지한 부락들이 즐비하여 마을 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명나 라 장수들은 마을로 달려들어 가서 노략질을 하느라고, 다시 군사의 대오를 정비할 겨를도 없었는데, 청나라 장수 영아 아대(英我兒岱)는 3만 명의 군사를 산골짜기에 숨겨두고 있었다가, 갑자기 달려나와 물 아치는 바람에 명나라 군사 는 다 패하여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김응하는 적의 군세가 매 우 강성한 것을 보고, 급히 사 람을 장홍립에게로 보내서 구원을 청하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병법을 모르고 달 려다가 스스로 참살을 당 하게 되었으니, 어찌 구원 을 바라리오?"

그리고는 곧 중군(中軍)과 우영(右營)을 거느리고 산마 루에서 진을 치고 최후의 승 부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安東金氏翼元公派周溪門中

安東郡 臥龍面 周溪洞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大宗會

- 會長 在晚
- 副會長 潤會
- 監事 章道 泰日
- 名譽會長 浩文
- 會長 恩仁
- 洪默·浩得·相默
- 夏默·在德·壽岩
- 慎在·養默·泰鴻
- 在潤·在權

安東金氏大邱宗親會

- 會長 鳳會
- 副會長 判述
- 東植 永太
- 七龍 寧秀
- 達千

安東金氏慶南釜山宗親會

- 會長 鳳會
- 副會長 判述
- 東植 永太
- 七龍 寧秀
- 達千

總務

— ◇ 消 息 ◇ —

★ 忠烈公先祖 歲享은 지난 11月 1日(陰10月9日) 午前9時 定刻, 安東郡 祿轉面 陵洞 墓庭에서 250余名의 後孫이 參祀, 盛大히 舉行하고, 이어서 增築齋舍 竣工式을 舉行이 增築事業에 功勞가 至大한 都評議公派 昌信(現 서울市 綜合民願室長) 宗親과 郡事公派 世鏞(建築家) 宗親에게 感謝狀과 紀念品을 贈呈하였다.

★ 按廉使公派 泰實(常任副會長 崙會氏 四女) 嬢은 지난 10月 30日에 實施한 韓國美術文化大藝術祭에서 書藝部門 出品作 170點 中에서 銅賞의 榮光을 차지하였다.

★ 지난 11月 18日, 驪州 宗親會에서는 30名의 宗親이 傳貫버스를 利用, 2日間의 旅程으로 安養의 文英公 山所와 淸原 梧倉의 按廉使公 山所, 그리고 安東忠烈公 山所를 巡禮省墓 하였다.

★ 翼元公派 喆洙(大宗會 理事 尚會氏 子) 君은 지난 12月 7日에 實施한 韓國美術文化大賞展에 出品한 公募作品 東洋画 四君子部門에서 『墨竹』이 銅賞으로 選定, 受賞하였다.

★ 大韓民國 政府에서는 지난 12月 10日, 世界人權宣言紀念日에 淸州大學校 總長(大宗會 會長) 明會 博士에게 國民勳章 모란장을 授與하였다.

★ 지난 12月 11日, 龍仁郡 外四面 翼元公派 門中에서는 甲會 宗親의 案内로 抱川 同樞公 山所를 비롯해서, 楊平 翼元公 山所를 巡禮省墓하고 이튿날은 安養의 文英公 山所를 省墓하였다.

★ 淸州地方檢察廳長인 副使公派 東喆 氏는 지난 12月 7日, 提原郡 鳳陽面 마곡리 等, 管轄內의 堤原郡과 丹陽郡의 『범치없는 마을』 4個部落을 訪問하여 이를 致賀 激勵하고, 각 부락마다 電子壁 時計와 陶器器 1세트 式을 傳達하였다. 整整

★ 지난 12月 7日, 忠淸北道 會議室에서 열린 제26회 忠北道文化賞 審査委員會에서는 自然科學 授賞者로 郡事公派 在佶 氏를 選定하였다. 忠北大學校 藥學大學을 卒業한 在佶 宗親은 淸州赤十字 青年奉仕會를 創立, 初代 會長을 지냈으며, 『精選漢方藥物療法』을 出刊하여 漢方醫學의 科學化와 國民保健 向上에 寄與하였고, 또 7年間이나 全國의 山野를 누비면서, 生藥을 採集·研究하여 『原色天然藥物大事典』 上·下 2卷을 著作하여, 우리나라 藥物史에 金字塔를 세웠다.

★ 忠南大學校 教授인 按廉使公派 泰喆 博士는 美國 유타洲立大學校 交換教授로 지난 12月 15日 出國하였다. 泰喆 博士는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을 卒業, 同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獲得하고, 네덜란드 國立大學院을 修了, 今年 2月 26日에 서울大學校 大學院에서 農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訃 告

提學公派 雲山門中 宗親 弘植 氏 大人 泰駿(號 松谷) 公께서 宿患으로 今年 九月 二十四日(陰 八月二十九日) 酉時에 瑞山 郡雲山面 壽坪里 自宅에서 享年 七十四歲로 別世하셨음을 告知합니다.

大宗會 顧問 西峰 思達 博士 逝去

大宗會 顧問이신 按廉使公派의 西峰 思達 博士께서 宿患으로 지난 十一月 二十九日 下午四時, 서울 冠岳



區 新林九洞 自宅에서 享年 五十七歲로 別世하셨음을 告知합니다. 一九二八年, 忠北 槐山郡 靑川面 桃源里에서 出生한 思達 博士는 國民學校를 卒業하고, 어려운 逆境속에서 獨學으로 大學檢定 試驗 全科目을 履修 合格하

고 醫學博士學位를 授與받았으며, 特히 書藝·繪畫(東洋画 音樂·文學·體育 等 多方面에서 그 才質을 發揮하여, 그 名聲을 國內에 널리 높였고 韓·英·獨醫學辭典을 비롯해서 數十種의 醫學書籍과 二百餘編의 論文을 出刊 發行하였으며, 社會적으로 活動한 功勞 또한 至大함으로, 博士의 逝去는 우리 宗中은 勿論, 國家적으로도 아까워하는 바입니다. 特히 博士께서 逝去하시기 數月前부터 文壇과 藝術關係 人士들이 『西峰墨蹟碑建立委員會』를 構成해서 그의 故鄉인 槐山郡靑川面華陽洞 國立公園 進入路入口에 七尺의 높은 碑를 세웠습니다.

容亦知夫水與月乎遊者如斯而未嘗往也... 天地曾不能以一瞬自其不變者而觀之則物與我皆無盡也... 夫天地之間物各有之無禁用之不竭是造物者之無盡藏也而吾與子之所共適焉... 蘇軾赤壁賦

(側面 解說文) (後 面 本 文) (側 面 附 書)

謹 啓

西峰金思達博士墨蹟碑 建設計劃에 대한 人事 策案內의 말씀... 菊香 그윽한 晚秋의 季節에 尊嚴而 安祥히 宅內 諸節이 均安하신을 상하 拜합니다. 大韓民國 政府에서는 지난 12月 10日, 世界人權宣言紀念日에 淸州大學校 總長(大宗會 會長) 明會 博士에게 國民勳章 모란장을 授與하였다.

大宗會의 發展을 爲해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贊助人名單

- | | | |
|--------|--------|---------|
| 參萬圓 | 提學公派 | 時應(中和洞) |
| 壹萬圓 | 郡事公派 | 日鏞(昌寧) |
| 壹萬圓 | 提學公派 | 南應(忠州) |
| 壹萬圓 | 密直司使公派 | 泰煥(淸州) |
| 壹萬圓 | 大護軍公派 | 榮應(弘濟洞) |
| 壹萬圓 | 提學公派 | 敬會(望遠洞) |
| 壹萬圓 | 提學公派 | 弘植(瑞山) |
| 壹萬圓 | 都評議公派 | 三奎(奉天洞) |
| 貳萬圓 | 翼元公派 | 元重(高尺洞) |
| 貳萬圓 | 都評議公派 | 天會(江陵) |
| 月曆 四百部 | 都評議公派 | 鳳會(서울) |
- (以上 會報發刊에 對한 贊助)
- 美學基金寄託 五拾萬圓 按廉使公派 在鶴(淸州)

(전호에서 계속)

이름날 새벽, 일행은 부락
을 출발하였는데 이날도 또한
몇개의 병단과 서로 스쳐 지
나갔다. 원종은 이번에는 병
단과 마주칠 때마다 시자(侍
者)를 그 병단의 지휘자 앞에
파견하지 않고는 전립수가 없
었다. 지휘자들의 말은 다 동
일하였다.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동경에 가서
다시 새로운 명령 밑에 행동하
게 될 것이다. 원종의 일행은
이 날도 몇차례 동하(東)하
는 부대 때문에 길을 양보하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부락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니 되었
다.

원종의 일행이 연도(燕都)
에 들어간 것은 한 달말일이었
다. 예정보다 구일이상 늦었
다. 한 달 하순(下旬)이 되면
서부터 천후(天候)가 좋지 않
아 눈(雪)이 내리는 날이 많
아서 완전히 부락에 들어 밤
한 채 일보(一步)도 나가지
않은 날이 있었고 그렇지 않
은 때는 매일과 같이 동하(東
下)하는 부대에 행진을 피하
주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때
로는 만나질 이상도 부락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마침내 오늘날은 연도(燕都)
에 들어간 것보다 한 달 아홉
세로부터의 사자가 왔다. 원
종은 작은 부락의 사원(寺院)
의 일실(一室)에서 사자를 맞
았다. 사자는 홍다구(洪茶丘)
였다. 원종이 홍다구와 만나
는 것은 구년만의 일이었다.
그는 연도(燕都)에서 원종 앞
에 부왕고종(父王高宗)의
부음(訃音)을 전한 사자로서
나타났는데,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팔복(副目)할만큼
성숙한 성인(成人)이 되었다.
당시는 十六七세였는데, 그 시
절의 어린 티는 씩 없어지고
지금과 한 당당한 청년 무장
이 되었다. 어깨 폭은 넓어지
고 눈은 맑고, 이마는 뽀뽀하
였다. 그리고 음성은 조용하
였다. 그러나 그러한 풍모자
고, 북계서해(北界西海)의 내

부(內附)의 일에 대해서는 일
체 언급하지 않았다. 임연한
사람을 치기 위하여 저 같은
대부대(大部隊)를 고려에 진
주(進駐)시켰을 것일까?
원종은 홍다구(洪茶丘)에게
최탄(崔坦)의 내부(內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홍다구는 곧 대답하였다.
「왕제는 탄(坦)의 충절(忠
節)을 가상하여 그의 원
(願)한 바를 받아들였읍니다」
「그의 원(願)이라는 것은?
」 북계(北界) 서해(西海) 육
십성의 일입니다.」

「자비령(慈悲嶺)을 경계로
해서 그 북부(北部)의 영토를
책정(冊定)하고 군대를 철수
공고(公告) 내속(內屬)시킨 것을
하여 十年 동안 그 안전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경(西
京)을 개칭(改稱)하여 동녕부
(東寧府)라고 결정하고 그것
을 보고할 사자(使者)는 이미
연도를 출발하였읍니다.」

원종은 간신히 자기 몸을
지탱하였다. 모든 일은 끝나
버린 것이다. 내일 세조를 알
현(謁見)해도 원종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떠한 진
정을 하여도 군대는 이미 고
려에 진주(進駐)하여 버린 것
이고, 자비령(慈悲嶺) 이북의
땅은 몽고의 관도에 편입되어
버린 것이다. 불길(不吉)한
젊은 사자(使者)는 허탈하게
앉아 있는 고려왕을 거기에 남
겨둘새 사라져 버렸다.

一月 末日, 원종은 연도에
들어갔다. 이날 동경을 원종
의 일행보다 며칠 늦게 출발
하여 일행의 뒤를 쫓듯이 바
쁜 행진을 거듭한 이상용도
또 연도에 들어왔다. 임연은
것이라는 태도로 되풀이 하여

말하였다.
원종에게는 이 경우도 이러
한 세조 후비(后妃)가
가혹한 지배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는 세조의 명
령에 의하여 거의 믿어지지
않는 이유에 부당한 침략(侵
略)이 지금 고려에 대해서 이
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의 잘못된 것은 아닐
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후에
모든 일이 전과 같이 되돌아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을 원종은 하지 않을 수가 없
었다. 세조 후비(后妃)의 말과
같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
(上書)하면 모든 일은 허락받
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럴
지도 모르지는 이와 같은 태
도로 세조는 이와 같은 태
도를 자기에 적용하지는 않
을 것이다. 원종은 그렇게 생
각하였다. 그 온유한 얼굴이
라든지 몸에 배인 분위기라든
지 이전의 세조와 조금도 변
탈이 없었다. 다만 이전보다
눈에 띄는 정도로 말이 없었
다. 이 때 원종은 五十二세
였고, 세조는 五十六세였는데
나이는 원종의 쪽이 약간 젊
었으나, 그러나 누가 보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원
종은 연정보다 허여보였고 이
미 높은 티가 있었는데 세조
는 연정보다 훨씬 젊고 실로
장년기의 정력이 넘쳐 흐르는
권력자다운 느낌이 있었다.

짧은 알현(謁見)을 마치고
세조의 말을 물러나오자 원종
과 이상용은 원종의 관(館)의
일실(一室)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았다. 원종은 중서
성에 상서하여 최탄(崔坦)이
六十성의 환부(還附)를 구하
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렇
게 하면 사내는 호전(好轉)되
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지 마
는,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이상용은 이번의 몽
고의 침략은 무슨 일이 있던
지 왕(王)이 연도에 들어가
장용(將勇)을 보내는 출병(出
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
면 세조는 六十성의 일에
해(北界西海) 六十성의 일에
대해서도 후(或은) 세조도 특
별한 생각을 갖게 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허여보진이
장용(將勇)에게는 오늘 더
이상의

말하리라.
원종에게는 이 경우도 이러
한 세조 후비(后妃)가
가혹한 지배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는 세조의 명
령에 의하여 거의 믿어지지
않는 이유에 부당한 침략(侵
略)이 지금 고려에 대해서 이
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의 잘못된 것은 아닐
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후에
모든 일이 전과 같이 되돌아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을 원종은 하지 않을 수가 없
었다. 세조 후비(后妃)의 말과
같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
(上書)하면 모든 일은 허락받
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럴
지도 모르지는 이와 같은 태
도로 세조는 이와 같은 태
도를 자기에 적용하지는 않
을 것이다. 원종은 그렇게 생
각하였다. 그 온유한 얼굴이
라든지 몸에 배인 분위기라든
지 이전의 세조와 조금도 변
탈이 없었다. 다만 이전보다
눈에 띄는 정도로 말이 없었
다. 이 때 원종은 五十二세
였고, 세조는 五十六세였는데
나이는 원종의 쪽이 약간 젊
었으나, 그러나 누가 보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원
종은 연정보다 허여보였고 이
미 높은 티가 있었는데 세조
는 연정보다 훨씬 젊고 실로
장년기의 정력이 넘쳐 흐르는
권력자다운 느낌이 있었다.

짧은 알현(謁見)을 마치고
세조의 말을 물러나오자 원종
과 이상용은 원종의 관(館)의
일실(一室)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았다. 원종은 중서
성에 상서하여 최탄(崔坦)이
六十성의 환부(還附)를 구하
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렇
게 하면 사내는 호전(好轉)되
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지 마
는,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이상용은 이번의 몽
고의 침략은 무슨 일이 있던
지 왕(王)이 연도에 들어가
장용(將勇)을 보내는 출병(出
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
면 세조는 六十성의 일에
해(北界西海) 六十성의 일에
대해서도 후(或은) 세조도 특
별한 생각을 갖게 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허여보진이
장용(將勇)에게는 오늘 더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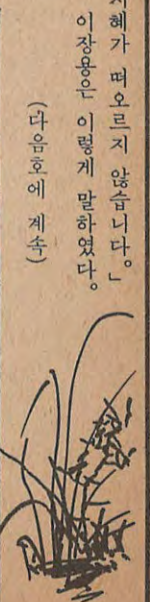
말하리라.
원종에게는 이 경우도 이러
한 세조 후비(后妃)가
가혹한 지배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는 세조의 명
령에 의하여 거의 믿어지지
않는 이유에 부당한 침략(侵
略)이 지금 고려에 대해서 이
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의 잘못된 것은 아닐
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후에
모든 일이 전과 같이 되돌아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을 원종은 하지 않을 수가 없
었다. 세조 후비(后妃)의 말과
같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
(上書)하면 모든 일은 허락받
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럴
지도 모르지는 이와 같은 태
도로 세조는 이와 같은 태
도를 자기에 적용하지는 않
을 것이다. 원종은 그렇게 생
각하였다. 그 온유한 얼굴이
라든지 몸에 배인 분위기라든
지 이전의 세조와 조금도 변
탈이 없었다. 다만 이전보다
눈에 띄는 정도로 말이 없었
다. 이 때 원종은 五十二세
였고, 세조는 五十六세였는데
나이는 원종의 쪽이 약간 젊
었으나, 그러나 누가 보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원
종은 연정보다 허여보였고 이
미 높은 티가 있었는데 세조
는 연정보다 훨씬 젊고 실로
장년기의 정력이 넘쳐 흐르는
권력자다운 느낌이 있었다.

風濤

(7) 井上靖 著

金崙會 譯

원종은 자기 왕위(王位)
에 다시 복위하여 일단 국내
의 문제는 수습되었다는 것을
아뢰었는데 세조는 이에 대해
서도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을
뿐 그러한 일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를 표시하였다. 그
리고 무엇보다 희망하는 일이
있으면 중서성에 상서(上書)
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사창(書
倉)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태도로 되풀이 하여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開城允公派 金履範
서울·城東區杏堂洞 三一七—三八五
電話·二九三—二二六一

安東金氏典書公派宗親會
會長 正教
副會長 景會
民默·鳳會·壽會
昌會·德會·泰榮
泰權·在雲

安東金氏龍仁郡宗親會
會長 長卿
榮會·洙龍·相閔
相斗·相珍·永熙
在漢·喆會·泰煥
形會·鍾默·永熙
亨默·昌植·敏植

安東金氏郡事公派
洗馬公派井邑門中
東默·在善·在根
榮得·上會·在奉
應會·在柵·在吉
長默·喆默·在煥
在玉·在浩·南用
斗會·彰會·泰成

지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상용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傳 說

永慕堂 孝行記

매는 서기 一五四五년... 세모(歲暮)가 다가오는 엄동 설한에 서해(西海)에서 불어 오는 모진 바람은 눈보라를 사정없이 몰고와서 이곳 천라도 무장(茂長) 고을 개개비(凱歌里)마을 一대도 밤사이 에 온통 백설이 쌓이고 말았다.

이 개개비 마을은 그들께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야산(野山)에 새무덤이 있고 그 무덤 옆에는 몇 개의 석가래를 세우고, 절이므로 둘러싼 초막(草幕)이 있으니, 이는 옛부터 부모의 산소를 三년간 지키기 위해 세운 여막(廬幕)이며, 이 여막에서 三년동안 산소를 지키는 사람을 일러 효자중의 효자라 하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들 무렵 부터 바람은 그치지 시작했지만 눈송이는 더욱 커져서 온 천지를 덮었고, 밤이 새도록 내린 눈은 무릎이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여막 안에서 애절한 상주(喪主)의 호곡(號哭)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먼동이 트고 날이 밝아질 무렵에서야 눈이 멈춰지고, 하늘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먼 마을에서는 닭들이 다투어 마지막 울음 치면서 울어 짓히고 무덤에 놓였는지, 평들이 구명(救命)을 호소하듯, 애처로운 울음소리로 고요한 찬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저 산에서 이 산으로 날아 다녔다.

이 때야 비로써 여막 안에서 호곡 소리가 그쳐지고, 더위어진 거죽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상주의 얼굴이 나타났 다. 그런데 여막 밖에는 이변(異變)이 벌어져 있었다. 온 천지가 흰 눈속에서 문혔는데, 비늘에 있었으나, 파가 바로

어찌된 일인지 산소를 중심으 로 해서 여막의 주변까지는 몇개의 가랑이 바람에 나풀 거릴 뿐, 눈이 온 자취는, 찾 아 볼 수 없었다. 이를 본 상 주의 눈은 불안간에 동그레졌 다. 아마도 꿈과 같은 광경인 에 온통 백설이 쌓이고 말았 다.

주는 여막 문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반백이 넘은 머리카락은 흩날리며, 흩날 리는 두 볼을 덮었고, 긴 수염은 바람을 받아 좌우로 휘날 리고 있었다. 상주는 갈기갈 기 찢어진 상복자락을 두 손 으로 여미면서 산소 앞에 나 아가 공손히 재배를 하였다.

그리고 주위에 흩어진 가랑이 을 모두 주워서 버리고는 동 녘을 향해 돌아 오르는 햇빛 을 향해 하늘에 감사사를 올렸 다.

이러한 이적(異蹟)은 옛말 에도 없던 일로서, 삼시간에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인 근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수 일 내에 온 고을이 알게 되어 감동하여 도운 것이라 하였 다.

이렇게 하늘의 감동까지 받 은 효자는 이조 개국 一등공 신으로 태종(太宗) 때, 좌의정 (左議政)을 지낸 익원공(翼元 公) 諱 士衡의 六대손이니, 휘 는 질(質)이며 자(字)는 문소 (文素)이고, 호(號)는 영모당 (永慕堂)으로 서기 一四七九 년에 출생하였다.

고조(高祖)의 휘는 종한(宗 漢)이니, 일찍이 생원(生 員) 試)에 합격하였고, 부령(部 令)의 벼슬을 지냈으며, 증조 (曾祖) 貴德)은 공조(公 曹) 佐郎)을 지냈는데, 모두 양주(楊州) 땅에 살았다. 조부 (祖父) 萬)은 통예원 (通禮院)에서 통찬(通贊)의 벼슬에 있었으나, 파가 바로

연산(燕山) 조(燕山朝)라, 선정(善 政)을 펴던 상감의 성질이 점 점 포악해 지면서, 나라와 백 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폭정을 일삼게 되자, 벼슬길 의 온당치 못함을 느끼고 이 무장 고을에 낙향해서 후진의 교학(校學)에 힘쓰면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 후손 들이 이곳에 세거(世居)하게 되었고, 공의 아버지 부중(福 重)은 증중(中宗朝)에 통 예원 통찬을 지냈으니, 공의 집안은 호남(湖南)에서 화변 (華邊)으로 손꼽히는 명문세가 (名門勢家)이고, 가세 또한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공 은 二십세가 넘도록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나 공의 나이 二십八세 되던 해 정월에 그의 아버지 통찬공이 四십五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공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면서 초종의 예(初終之禮)를 마치 고 가까운 동음치(冬音峙)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막을 치고 발상할 때까지 三년동안 그 허술한 여막안에 기거하면 서 신혼(震昏)의 예를 결하지 아니하고, 묘역의 풀을 뽑고, 근방까지 깨끗이 쓸어 정리하 게 하였다.

이렇게 三년 동안의 시묘사 리를 마쳤으나, 一五二五年 三월에는 조부(祖父) 이신 통 찬공(通贊公)이 또 별세하였 고, 공의 시묘사리는 또 계속 되었다.

이리하여 전, 후 六년간의 집상(執喪)을 마치고 나니 공 의 나이도 벌써 三十三세가 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진사 시(進士試)에 응시, 합격하였 다.

그러나 공에게 슬픔은 또 닳았다. 조모(祖母) 천안 전

씨가 八십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서 공의 시묘살이는 또 시작되어 다시 三년을 지냈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어느덧 공의 나이는 四십의 고개를 넘게 되었고, 그동안 한번도 부인의 곁을 가까이 한 일이 없었기에, 二십三世 때 낳은 아들 사후(士勸) 외에는 자녀간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십여년이나 집상을 치루고 보니 이제 남은 것은 가난 뿐이고, 조석의 끼니조 차 어려운 형세가 되고 말았 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 경속에서도 홀로 의롭게 늙어 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갖은 효성을 다하였고, 비록 가난 에 조달되는 살림살이나,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음식은 다 구 해 드리고, 조금도 거정을 끼 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또 부인 광산 김씨(光山金氏) 역시 규범있는 가문에 자라서 부덕(婦德)을 쌓고, 효순의도 (孝順之道)를 익혀서, 친성이 은유하고 제사를 받드는 법도 나,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에 어감이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 을 모시는 데 조석의 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 드리고 의복 등물은 언제나 깨끗하게 모셨다.

이렇게 효양을 받아온 그 어머니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 니, 그때 공의 나이는 벌써 四십八세로서 초로(初老)의 고개를 넘어서 머리는 반백 (半白)이 되고, 오랜 고생끝 에 몸은 구도로 쇠약한 때였 다.

그러나, 공은 다시 묘 옆에 여막을 치고 시묘살이로 들어 가서 三년상을 마쳤는데, 이번 시묘살이 중 어느 날 밤, 눈이 억수로 퍼부었으나, 산소와 여 막의 주변에는 눈방울 하나 내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 무장 고을은 물론, 인근 고을 까지 출천지효(出天之孝)라는 화제가 퍼지고 칭송이 자자하 였다.

공의 효행에 대한 하늘의 보응(報應)은 이러한 한 가지 기적만은 아니었다. 극도의 가난에 조달되는 공 의 가정에서 근근히 과세(過 歲)라고 지내고 나니 남은 것 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보, 이제 보름도 사흘밖 에 남지 않았잖소?」

「네.....」

수심이 가득 찬 공의 물음 에 부인 김씨의 눈에서는 눈 물이 글썽하면서 힘없이 외마 디 대답만 하였다.

「그래, 제반미(祭飯米) 나 「내 제반미는 작년 가을에 정하게 봉해 두었습니다만.....」

부인으로 부터 이 말을 들은 공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를 본 부인은 다시 말의 뒤를 이 었다.

「저... 채소는 지난 봄에 팔려 둔 고사리와 도라지가 있고, 과일은 가을에 꽃감 몇 동과 대추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

그래도 공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부인은 저렇게 볼부 터 제수준비를 해 놓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고기 한 점 사 차릴 도리가 없기 때문이 었다.

공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 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책 이 생길 리 없었다.

이때 부터 공은, 목욕재계 (沐浴齋戒)하고 천 옷이나마 깨끗이 갈아 입었다. 집의 안 관을 모두 정결하게 소제하고 방 안에는 향(香)을 피워, 악 취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앉 음새를 단정히 하고서, 두 눈 을 지긋이 감고, 어린 시절로 생각을 돌려 조부모님께 배 방은 애유의 공과 부모님의 자상하던 은혜를 생각하고 어 린 시절에 받은 교훈들을 뒤 우쳐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적마다 제사 한 번 변변히 못차리는 불효 의 처지가 가슴을 찢는 듯하 였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들이 지나고 보니, 바로 정월 대보 름이 되었다. 옛부터 이날은 한해의 풍년을 점치는 명절 로서 석양이 될 무렵부터, 온 동리 사람들은 보름달을 먼저 보려고 늘과산으로 나가 법 석을 떨고 아이들은 논밭, 밭 뚝에 불을 질러 태우고 횃불 을 휘두르며 뛰놀고 있었다.

공이 조용히 제계(齋戒) 하 고 있는 방에는 어느덧 어둠 이 감돌고, 동창에는 달빛이 비치었다. 동창의 달빛을 바 라보면 공은 불안간에 가슴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에서는 뜨 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통곡성이 터졌다. 공은 완전히 무아(無我)의 상태에 서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니 그 울음소리가 담을 넘 어 이웃까지 들리었다.

이 때, 부인이 문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상도 합니다. 어떤 일로 평 한마리가 부엌에 날 아 들어서 아무리 꽃아도 가 지를 앉잖아요. 어서 와서 좀 보세요.」

이 말을 들은 공은 의아 하 면서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부엌안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부엌안 나뭇더미 위에 살아 통통한 장끼 한 마리가 도사 리고 앉아서, 사람을 향해 절 이라도 하는 듯이 고개만 꺾듯 하고 있었다.

「우리, 저 평을 잡아서 제 물로 씹시다.」

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 러나 공의 생각은 그렇지 않 았다.

「허허, 그 무슨 소리요? 미물의 짐승도 제 생명이 아 까워서 저렇게 애걸하고 있지 않소.」

「아니 올시다, 우리가 제사 상에 차릴 것이 없어 통곡하 는 것을 하늘이 아시고 보내 주신 것이니, 우리가 평을 씹읍시다.」

공의 효행에 대한 하늘의 보응(報應)은 이러한 한 가지 기적만은 아니었다. 극도의 가난에 조달되는 공 의 가정에서 근근히 과세(過 歲)라고 지내고 나니 남은 것 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보, 이제 보름도 사흘밖 에 남지 않았잖소?」

「네.....」

수심이 가득 찬 공의 물음 에 부인 김씨의 눈에서는 눈 물이 글썽하면서 힘없이 외마 디 대답만 하였다.

「그래, 제반미(祭飯米) 나 「내 제반미는 작년 가을에 정하게 봉해 두었습니다만.....」

부인으로 부터 이 말을 들은 공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를 본 부인은 다시 말의 뒤를 이 었다.

「저... 채소는 지난 봄에 팔려 둔 고사리와 도라지가 있고, 과일은 가을에 꽃감 몇 동과 대추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

그래도 공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부인은 저렇게 볼부 터 제수준비를 해 놓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고기 한 점 사 차릴 도리가 없기 때문이 었다.

공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 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책 이 생길 리 없었다.

이때 부터 공은, 목욕재계 (沐浴齋戒)하고 천 옷이나마 깨끗이 갈아 입었다. 집의 안 관을 모두 정결하게 소제하고 방 안에는 향(香)을 피워, 악 취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앉 음새를 단정히 하고서, 두 눈 을 지긋이 감고, 어린 시절로 생각을 돌려 조부모님께 배 방은 애유의 공과 부모님의 자상하던 은혜를 생각하고 어 린 시절에 받은 교훈들을 뒤 우쳐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적마다 제사 한 번 변변히 못차리는 불효 의 처지가 가슴을 찢는 듯하 였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들이 지나고 보니, 바로 정월 대보 름이 되었다. 옛부터 이날은 한해의 풍년을 점치는 명절 로서 석양이 될 무렵부터, 온 동리 사람들은 보름달을 먼저 보려고 늘과산으로 나가 법 석을 떨고 아이들은 논밭, 밭 뚝에 불을 질러 태우고 횃불 을 휘두르며 뛰놀고 있었다.

공이 조용히 제계(齋戒) 하 고 있는 방에는 어느덧 어둠 이 감돌고, 동창에는 달빛이 비치었다. 동창의 달빛을 바 라보면 공은 불안간에 가슴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에서는 뜨 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통곡성이 터졌다. 공은 완전히 무아(無我)의 상태에 서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니 그 울음소리가 담을 넘 어 이웃까지 들리었다.

이 때, 부인이 문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상도 합니다. 어떤 일로 평 한마리가 부엌에 날 아 들어서 아무리 꽃아도 가 지를 앉잖아요. 어서 와서 좀 보세요.」

이 말을 들은 공은 의아 하 면서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부엌안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부엌안 나뭇더미 위에 살아 통통한 장끼 한 마리가 도사 리고 앉아서, 사람을 향해 절 이라도 하는 듯이 고개만 꺾듯 하고 있었다.

「우리, 저 평을 잡아서 제 물로 씹시다.」

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 러나 공의 생각은 그렇지 않 았다.

「허허, 그 무슨 소리요? 미물의 짐승도 제 생명이 아 까워서 저렇게 애걸하고 있지 않소.」

「아니 올시다, 우리가 제사 상에 차릴 것이 없어 통곡하 는 것을 하늘이 아시고 보내 주신 것이니, 우리가 평을 씹읍시다.」

공의 효행에 대한 하늘의 보응(報應)은 이러한 한 가지 기적만은 아니었다. 극도의 가난에 조달되는 공 의 가정에서 근근히 과세(過 歲)라고 지내고 나니 남은 것 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보, 이제 보름도 사흘밖 에 남지 않았잖소?」

「네.....」

수심이 가득 찬 공의 물음 에 부인 김씨의 눈에서는 눈 물이 글썽하면서 힘없이 외마 디 대답만 하였다.

「그래, 제반미(祭飯米) 나 「내 제반미는 작년 가을에 정하게 봉해 두었습니다만.....」

부인으로 부터 이 말을 들은 공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를 본 부인은 다시 말의 뒤를 이 었다.

「저... 채소는 지난 봄에 팔려 둔 고사리와 도라지가 있고, 과일은 가을에 꽃감 몇 동과 대추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

그래도 공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부인은 저렇게 볼부 터 제수준비를 해 놓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고기 한 점 사 차릴 도리가 없기 때문이 었다.

공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 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책 이 생길 리 없었다.

이때 부터 공은, 목욕재계 (沐浴齋戒)하고 천 옷이나마 깨끗이 갈아 입었다. 집의 안 관을 모두 정결하게 소제하고 방 안에는 향(香)을 피워, 악 취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앉 음새를 단정히 하고서, 두 눈 을 지긋이 감고, 어린 시절로 생각을 돌려 조부모님께 배 방은 애유의 공과 부모님의 자상하던 은혜를 생각하고 어 린 시절에 받은 교훈들을 뒤 우쳐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적마다 제사 한 번 변변히 못차리는 불효 의 처지가 가슴을 찢는 듯하 였다.

在仁安東金氏宗親會

- 顧問 在殷·漳會
- 名譽會長 春應
- 會長 基成
- 副會長 在玉·漢龍
- 監事 順成
- 總務理事 成會
- 事業理事 星會
- 組織理事 俊會

新年 賀 謹

大宗會 理事 金 元 鏞

郡事公派 壽仁

서울: 江西區 禾谷3洞 272
電話: (자) 602-4831
(사) 602-1534

安東金氏安東市宗親會

- 會長 裕植
- 副會長 元賢
- 總務 英植
- 監事 東震
- 壽仁 鳳洙

後松齋(諱士貞)公事蹟

大邱宗親會前會長 浩文

一五九二年(宣祖二六)壬辰 漢 籌策으로 洛東江邊의 여러 島夷(日本)가 來侵하여, 그 敵鋒이 碎地에 怒濤熱炎과 같 이 밀어닥칠 때, 國家의 厚 恩을 입고 全城의 重任을 맡 은 守令 方伯들은 實 시위 한 번 당겨보지 못하고, 逃竄하 기에 바빠할 무렵, 邊鄉의 韋 布寒士로서 忠憤에 불타는 憂 國衷情으로 將을 잡고 일어선 義兵의 驅起는 忠義의 化身이 요, 救國의 守護神이라 할 수 있었다.

當時 倡義擊敵의 壯舉는 嶺 南이 그 첫째였으니, 여기에 後松齋(諱士貞)公도 그 중의 한 분이였다.

亂이 일어났지 몇 달이 못 되어 八路가 瓦解되고 都城이 失守되어 大駕가 龍灣(義州) 으로 播遷하게 되니, 그때나 라의 運命은 甚센 바람 앞에 가물거리는 燈火의 格이 되고 말았다.

이 때 公의 伯氏 晚翠堂(諱 士元)公이 義兵의 整齊將으로 慶州까지 赴陣할새, 公 또한 草茅之士로 危身赴難한 것을 決心하고 奮然히 일어나서, 내 어져 王土의 一民으로 弁服이 라 해서 國家의 危難을 晏然 히 坐視할 수 있었나? 하고 家産을 기울여 倡義를 일으키 니, 數日內에 遠近에서 모인 決死의 鄉丁들이 數百名에 달 하였다.

이 때 公의 나이가 四十一 歲로서 그 仲氏 直長公(諱士 亨)과 함께 宜寧에서 軍勢를 올리고 있는 義兵將, 忘憂堂 郭再祐의 陣을 찾아 이에 合 流하였다.

그 때 敵들은 이미 湖南을 蹂躪하기 위해 鼎나루를 건너 러고 無限히 來를 쓰고 있는 데, 彼我는 兵力의 數로 寡衆寡寡不敵이라 到底히 對敵할 수 없는 劣勢에 몰려자, 公은 喝勵聲으로 「어찌 吾들을 決

意하였다면 賊賊하기들이 豈 과 같이 못하리요? 公들은 皆 내 울음으로 그치려 하는가 ? 나만 效死盡忠은 이 한 판 의 싸움이 있을 뿐이냐」하 고 悲憤과 感激을 뜻하여 一 聯의 詩를 吟詠하였다.

敵血心如劔 焚薪志不灰
 (譯) 피를 마치며 盟誓하 나 마름은 칼날과 같고, 薪은 타 버려도 뜻은 재가 되지 않 으리라.

公이 이렇게 哀切한 丹衷을 吐露하게 되니 全城의 陣中이 激動感奮하여 그 士氣가 衝天 하니 可히 山이라고도 뒤엎을 듯하였다.

이를 본 賊將 清正은 그 軍 容의 嚴正함과 整肅하면서 도 堂堂한 威勢를 보고 그 部下 將兵들에게 말하기를 「저 城 中에는 巴야호로 義氣가 騰天 하고 있으니 함부로 犯할 수 없다」하고 自進退却을 하였 고, 이 때 郭忘憂堂은 「一詩 의 效力이 오히려 三軍을 凌 駕했다」고 極口讚嘆 하였다.

이로서 前後 數年間의 戰禍 속에서 시달리던 嶺湖의 數十 郡이 豹虎의 瓜牙에서 벗어나 軍國의 需用을 全擔하게 된 것 은 實로 火旺義陣의 功이 至 大하였다고 할 것이다.

忘憂堂을 中心으로 한 義士 諸公이 一片孤城에서 倡義의 將을 잡았을 때 이미 誓死報 國을 血盟으로 다짐하였으니 一騎當千으로 敵愾의 勇猛은 悲壯하였고 여기에는 勿論 忘 憂堂의 忠義에 넘치는 勇氣와 智略이 奏效하였지만 그 裏面 에는 後松齋公의 偵察의 機 敏함과 贊畫의 周密한 功도 한 至大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해 八月二十九日에 忘 憂堂께서는 母喪을 當해서 離 陣歸郷하게 되니 休使使 悟里

李元翼은 一弱勢한 孤城을 守 護하기 어렵다」하고 回軍下 城할 것을 數次 懇懇하였으나 公은 곧, 從事官 成安義·助 防將 李諸公과 相贊勳을 하 면서 「이 城을 지키지 못하면 南下하는 賊들이 아무 顧後의 危念없이 怒濤처럼 밀어닥칠 것이니, 비록 大將이 私情으 로 인해 離陣하였기로 어찌 이 危急한 時期를 맞이해서 아 무 籌策도 마련함이 없어야 이 貴重한 要衝地를 함부로 拋棄 할 수 있으랴...」하고 다시 軍令을 더욱 嚴重히 내려, 守 護를 굳게 하니 그 후에 寒暑 가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賊 은 敢히 한번도 侵犯하지 못 하였다.

一五九九年(己亥)에 비로소 賊平이 되고 公은 비로소 罷 陣下城하여 歸郷의 길에 올라 達城旅舍에서 一泊을 하였는 데 夢中에 賊軍大隊를 만나 張弓冒刃으로 獵賊하기를 草 薶와 같이 무절러 瞬息間에 全滅하고 因覺一聯을 吟詠하 였으니,

身作元戎幕府傲 旌旗生色 路超遙 川停岳鎮謀臣得 手 鈔 鈔名懸天上五雲朝 爲君 耿耿丹心驚 好事都然夢裡鏡

(譯) 몸은 大將(元戎)의 麾下 幕僚가 되었고, 義旗는 旌旗나, 길은 遙고 岳岳하 네, 山河가 平定된은 運籌가 으뜸이요, 劍戟을 잡은 戰士 勇猛하다. 戰捷의 卜소리 속에서도 敵들은 眼中에 남아 있고, 이름은 하늘 높이 五色 구름 위에 달렸네. 나라 위한 一片丹心 뜨겁기만 하면, 송 은 일은 空然히 꿈 가운데 선 하네.

이 해 公이 平素에 가슴 깊 이 서린 忠憤과 敵愾心이 간 歲月을 통해서 復讐討賊의 恨 이 磨練不忘하여 꿈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리라.

이로써 三千里 全城이 八年 이란 긴 歲月을 두고 붉은 피 로 물들고 生地獄을 彷彿케

하던 阿鼻叫喚의 悲慘하고 그 慘酷하던 戰雲도 말끔히 淸히 고 平和로운 아침 햇빛이 燦爛하게 東昇 하늘에 비치니 森羅萬物이 眞은 絕望의 惡夢 에서 깨어나 蘇生の 밝은 새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로 忘憂堂은 오랜 戰 亂의 疲勞를 씻으려고 琵琶山 에 隱居靜養할새 後松齋公 이 마침 禮訪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忘憂堂은 欣然히 嘆對하면서 握手叙情 하기를 「그대와 나는 年同이오, 義同 이오, 또한 火旺山에서는 血 盟으로 다짐한 死生之同이라, 特히 잊지 못할 일은 焚薪志 不灰의 句라」하고 擊節吟詠하 면서 無數히 讚嘆하였다.

公의 諱는 士貞, 字는 正叔 이니 都評議公(諱九鼎)의 七 代孫이며, 六代祖 諱子瞻公 은 李朝定宗 때, 咸吉道 監牧 官을 除授하였으나, 不受하고 安東에서 義城沙村으로 移居 하였고 曾祖의 諱는 光粹이니 일찌기 成均生員으로 太學에 居齋하였으나 燕山亂政을 보 고 決然히 南歸하여 晦蹟守道 하면서 自號松隱이라 하고 爲己之學으로 後進을 養育하 였는데 後日에 士林에서 그 學德과 風節을 尊慕해서 義城 의 藏持書院에 昭享하였다.

公은 明宗七年(一五五二)에 義城沙村의 舊第에서 出生하 니 天資가 穎悟하며 慷慨한 뜻이 있고, 또한 孝誠이 至極 하였다. 長成함에 따라 學問 에 더욱 勤勉하여 經史子集을 고루 涉獵하고 爲己近裏의 學 으로 一貫하였다. 當時에 退 溪先生이 斯學을 倡明하여 蔚 然히 一代의 宗師가 되어 遠 近의 學者들이 驅衣雲集 하였 으나, 公은 年齒未及으로 講 道之席에 參與치 못함을 恒常 恨하다가 老先生께서 易實을 하매 公은 病傷하기를 及門諸 賢과 같이 하였다. 또 陶山廟 宇가 勸建되니 公은 即時에 趨祇해서 謁廟를 하고 岩軒几 杖 앞에서 惆悵하기 半日에 一聯詩를 읊었다.

先生德業日星明 後學今來想 典型 都將未及揮衣恨 拜寓 藁增敬慕誌

(譯) 先生님의 德業은 日星 처럼 밝은데, 後學은 이제 와서 典型을 欽仰하고, 어 려서 미처 가르침을 받지 못한 恨을 藁增之慕로 詩를 敬慕하는 情성스리나 이다.

여기에서 平日 顯學의 懇切 한 誨 歷歷히 呼訴하였으니, 그 聞風欽想之情을 可히 짐작하 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公은 當時에 李蒼石 坡과 申梧峰之悌, 李石潭 潤雨 李 南溪 輔 같은 諸賢과 더불어 道義의 交로 當代의 推重을 받았으며, 또 西陲 柳文忠公 (成龍)은 恒時 「外氏의 門에 某某兄弟가 있으니 後日의 樹 立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公은 그 伯氏 晚翠堂 公과 仲氏 直長公으로 하여금 同 堂에서 湛樂融怡해서 講磨하 고 征邁하는 工夫가 老齡에도 쉬지 아니하였고, 每樣 曾王 考松隱先生의 十歲으로 子孫 들을 誠飭하기를 「우리 집가 訓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들은 恒時 服膺해서 疎忽함이 없이 하라」고 訓戒하였다. 또한 朝 夕으로 諸葛武侯의 出師表를 외우며 唏噓涕泣하니 그 忠憤 의 炳炳한 마음은 天賊의 것 이었다.

古人들의 嘉言善行을 拔聚 해서 日用修省의 資로 삼았으 며, 溪門諸賢의 疑禮問答은 모야 二篇의 冊을 만들어 「溪 門禮說類纂」라 이름하였다. 또 「歲寒漫錄」等 雜著과 遺 稿를 남겼다. 住居宅邊에 數 間的 精舍를 세우고 扁額하기 를 「後松齋」라 自號하였으니 이는 大概 歲寒後凋에서 取한 뜻으로, 實은 松隱先生이 手 植하신 萬年松에 藁增萬慕의 뜻을 담은 것이었다.

(二頁에 계속)

新年賀

謹

서울特別市 綜合市民廳室長
都評議公派 金昌信

서울: 西大門區 忠正路 3街 30~6
電話: 362-2114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提學公派 金奎鳳
原州市台庄二洞一一三五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郡事公派 金在潤
平澤郡 西炭面 寺里

安東金氏安靖公派

會長 金弘默
江陵市 校洞 三〇五
公州郡 正安面 田坪里 一六七

(전호에서 계속)
◇九世 卜好(或 寶海)

奈勿王이 薨하고, 寶聖이 王位에 올라서 그 十一年(서기 四一)에 公을 高句麗에 人質로 보냈으니, 高句麗는 寶聖이 質子로 갔던 곳이다. 그러나 寶聖이 薨하고, 訥祗가 繼立하니 公의 伯兄이라. 訥祗가 即位한 二年에 朴堤上의 智巧로 돌아오게 되었다. 後日에 孫子 智證이 王位에 올라서 葛文王으로 追尊하였다.

◇十世 智寶(或은 斯寶· 또는 期寶)

벼슬이 伊湊으로서 慈悲王 二年(己亥)에 角干이 되었다. 後日에 아들 智證王이 葛文王으로 追尊하였다.
妃 烏生夫人 金氏는 伯父 訥祗王의 딸이며 寶聖王의 外孫女이다. 子.. 智證王.

◇十一世 智證麻立干

西紀 五〇〇년에 第二十二代王이며 金氏 七代王으로 即位하였다. 諱는 智大路, 또는 智哲老라고도 傳해지고 있다. 王은 体格이 壯大하고 膽力이 過人하였으므로 再從兄인 炤智王이 無嗣하여 王位를 繼承하였다. 이때 寶齡은 이미 六十四歲였다.

王이 即位한지 三年만인 西紀 五〇二年에 殉葬을 禁止시켰다. 이때까지는 王이 죽으면 男女 各各 五名式을 殉葬(산 사람을 埋葬)하였는데, 이러한 制度를 禁止한 것이다.
또 王은 親히 奈乙神宮에 祭祀를 지내고 各州 郡主에게 農事를 獎勵하도록 命令하고, 처음으로 소를 利用해서 밭가는 法을 가르쳤다. 王 四年 十月에는 群臣들이 王에게 말하기를, 「始祖께서 創業한지 二十二代가 되었으나 國號가 確實하지 아니하여, 或은 斯羅라 하고 或은 斯慮라 하며

璿源世系 (2)

또 新羅라고 하나, 臣等이 생 각 하옵건대 「新」이란 德業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 옴고, 「羅」는 四方을 網羅한다는 뜻이 옴니 新羅를 國號함이 옴고, 또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國家가 있으면 반드시 帝나 王이 있는 데 우리는 始祖大王께서 建國하신 후로 二十二代에 이르러 오니, 다만 그 稱號를 方言으로 부를 뿐, 바른 稱號가 없아온 데 지금부터 群臣들은 新羅王國으로 號稱하옵기 삼가 아뢰옵나이다.」고 하자 王이 이를 許諾하였다.
王 五年 四月에는 喪 降服하였다. 또 十五年 五月 服을 制定 是는 阿戶村에 小京을 設置하여 이를 施行토록 하고, 九月 是는 役夫 諸를 徵集해서 波里城(三 陟)·彌貴 城(興海)·骨火城(永 川)을 築造하였다.
六年에는 王이 親히 州·郡·縣의 制度로 定하고 또 悉 直主(三陟)를 設置하여 異斯 夫로 하여금 軍主를 삼으니 軍主의 制度가 이때부터 始作되었다. 또 그 해 十一月에는 有司에게 命하여 어름을 貯藏하게 하였으며 船舶을 利 用해서 交通의 便宜로 圖謀하 였다.
十年 正月에 王은 서울에 東市를 開設하여 物資의 相通을 이루었고 三月에는 糶(糶)을 만들어서 猛獸의 被害를 없앴다.
王 十三年(五一) 六月에 于山國(울릉도)이 降伏하고, 每年 土產物을 바쳤다. 그런데 이 于山國은 東海에 있는 섬

으로서 그 地方이 百里나 되 며 사람들은 바다가 멀고 험한 것을 믿고 굴복하지 않으니, 王은 伊湊 異斯夫를 何瑟羅州(江陵)의 軍主로 삼아 이들을 率服시키었다. 異斯夫는 이들이 사나우면서도 어리 석음을 알고, 威勢로서는 어 려우므로 計巧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木偶獅子를 만들어서, 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海岸에서 「너희 들이 만약에 降服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놓아 서 모조리 짓밟아 죽일 것이 다.」고 외치니 于山國 사람들이 興平大王으로 追尊하고 五廟에 모셨다.
妃는 興吉王后 金氏, 子.. 孝讓
◇十五世 義寬
벼슬은 匡于伊湊이며, 元聖 王 二年에 神英大王으로 追尊 되었다.
妃는 英懿王后 金氏, 子.. 魏文
◇十六世 魏文
一名 訓人이며, 벼슬이 匡于(잡간) 伊湊으로서 中侍가 되었다가, 聖德王 十二年에 隱退하였다. 孫子인 元聖王이 興平大王으로 追尊하고 五廟에 모셨다.
妃는 興吉王后 金氏, 子.. 孝讓
◇十七世 孝讓
벼슬이 大阿干, 或은 一吉 准 또는 角干이라 한다. 아들 元聖王이 明德大王으로 追尊 하고 五廟에 모셨다.
妃는 繼烏夫人 朴氏나 昌道 伊己의 딸이며, 昭文太后로 追封되었다. 子.. 敬信(元聖王) 追封되었다. 子.. 敬信(元聖王)

璿源世系 (3)

解夢을 시켰더니, 「北川 물에 祈禱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니 그 때에 宣德王이 昇遐하고 나서, 아들이 없어 群臣들이 議論하고 王의 族子 周元을 推戴키로 하였다. 그러 나 周元의 집이 關川을 건너, 京北 二十里에 있었는데, 때 마침 밤중에 큰 비가 내려 周元은 강물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 群臣들이 말하기를 「周元은 天命을 받지 못했다.」 담그느라 한창이었다. 그러나 公의 집에서 해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로서 얼마 남지 않는데 주로 우선 제사에 쓸 장을 담그고, 나머지로는 나마 먹을 장을 담그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쥐들이 와서 제사에 쓸 장들 속에 들어가, 짓밟고 흐트러 버렸고 말았 다. 이튿날, 아침에 이를 본 公의 내외는 정성에 부추움을 스스로 느끼고 마주 앉아 종일 울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장독가를 보았을 때, 또 이번이 일어나고 있었 다. 장독가에는 많은 쥐들이 와서 배죽음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公이 여막을 치고 시묘살이를 하던 곳을 모든 사람들이 제창산(祭廳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해서 公인후(河西 金麟厚) 선생은 公의 집을 영모당(永慕堂)이라 하였고, 이로 인해서 公의 당호(堂號)가 되었다.
또 一五四六年(明宗 一) 乙卯에는 호남(湖南)의 사람 (士林)에서 公의 幼행과 그 사적(事蹟)을 상소하였는데, 명(明)나라의 세종 황제(世宗 皇帝)는 효자 진사 김질지여(孝子 進士 金質之)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함으로써 정여각(旌閭閣)을 지었고, 一六一三年(癸丑)에는 다시 호남의 사람 에 의해서 도암사(道巖祠)를 세워 향사를 지내게 하였다.

◇十一世 眞宗
벼슬은 角干이다. 配는 禹 貞夫人 朴氏, 子.. 欽運
◇十二世 欽運
벼슬이 角干이며, 武烈王 二年 乙卯(六五) 七月에 郎 樞大監이 되어서 百濟와 交戰 하다가 陽山 밑에서 戰死하니 그 地方 사람들이 陽山歌를 지어 부르면서 슬퍼하였다.
配는 朗元夫人 朴氏, 子.. 摩次
◇十三世 摩次
벼슬이 匡于이다.
配는 河次夫人 朴氏, 子.. 法宣
◇十四世 法宣
벼슬이 大阿干이며, 玄孫인 元聖王이 王位에 올라, 그 二年 丙寅(七八)에 玄聖大王으로 追尊되었다.
◇十八世 元聖王
諱는 敬信, 或은 敬慎이다. 新 羅의 國運이 바뀌면서, 太宗 武烈王系가 끊어지고, 元聖王이 即位하니, 이는 智證王以後, 實로 八代, 二七一年만이 며, 이로써 敬順王까지 十四代 一三五年間 王統을 이 어왔다.
王은 그 먼저 惠恭王 十六年(七八〇)二月에 伊湊 金志 眞이 叛亂하였을 때, 敬信이 王命을 받아 上大等 金良相과 함께, 合勢하여 金志眞을 斬殺하고 叛亂을 平定함으로써 功을 세웠으나, 이때 惠恭王과 王妃가 弒害됨으로 金良相이 王位에 오르니 이가 公인 宣德王이고, 敬信은 上大等이 되었다. 그런데 敬信이 어느 날 밤에 幃頭를 벗고 素笠을 쓰고, 十二絃琴을 안고서 天官寺 우물에 들어 간 꿈을 꾸었는데, 餘三이라는 사람에게

寶盛熱硬化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時 應
代理學公派 提學公派

서울 · 九老区 温水洞 100-20 (永登浦機械工業團地內)
電話: 612-3459
614-1531~2
612-7153
自宅: 433-5093

郡事公派 金 日 鏞
昌寧郡梨房面長川里一〇〇四

美國 유타州立大學校 教授
按廉使公派 金 泰 喆
農學博士 (前忠南大學校教授)
清原郡梧倉面陽青里時才洞

郡事公派 金 在 學
平澤郡 西炭面 寺里

郡事公派 金 敬 默
全南康津郡東面錦江里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郡事公派 金 榮 號
全南康津郡東面錦江里